

[보도자료] 바이브컴퍼니, CMS(Content Marketing Summit) 2023에 참여해 호평 받아

- 행사장에서 국내 최대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썸트렌드 소개, 현직 마케터들에게 큰 호평 받아
- 바이브, 썸트렌드를 기업의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돕는 최고의 서비스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



<사진 = CMS 2023에서 바이브컴퍼니 부스 시연을 보고 있는 참가자들의 모습>

바이브컴퍼니(대표 김성언, 이하 바이브)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진행된 CMS 2023(Content Marketing Summit)에서 자사 대표 서비스인 '썸트렌드(Sometrend)'를 선보여 행사에 참여한 현직 마케터들의 큰 호평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8회를 맞이한 CMS는 글로벌 지식 플랫폼 기업 DMK Global이 주최하는 대형 지식 컨퍼런스다. CMS는 매년 다양한 산업군의 명사 및 전문가들이 글로벌, 국내 콘텐츠 마케팅 트렌드를 효과적으로 소개하여 콘텐츠 마케터들이 주목하는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 잡았다.

CMS의 공식 파트너사로 참여한 바이브는 행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국내 최대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썸트렌드(Sometrend)'를 소개하며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면 업무와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인사이트



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어필했다.

썸트렌드는 그 동안 일반인이 사용하기 어려웠던 온라인 공간 속 빅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해 사용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로, 마케터, 대학생, 컨설턴트, 크리에이터 등 인사이트를 얻고자 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썸트렌드 어스(Sometrend Us)와 클라우드(Sometrend Cloud)가 중점적으로 소개됐다. 썸트렌드 어스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해볼 수 있는 범용 서비스이며, 썸트렌드 클라우드는 비즈니스 환경에 최적화된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는 B2B 전용 서비스다.

행사에서 썸트렌드를 이용해 본 현직 마케터들은 “소비자들의 실제 목소리를 쉽게 볼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소셜 빅데이터를 쉽게 분석할 수 있고, 업무에 필요한 인사이트를 빠르게 얻을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다”, “사무실에 가서 기업 특화 솔루션을 실제로 적용해보고 싶다”는 등 많은 관심을 보이며 서비스 도입 의사를 적극적으로 내비쳤다.

바이브 썸트렌드팀 윤순호 팀장은 “이번 CMS 2023에 참여한 분들이 썸트렌드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에 많은 관심을 주셨다”며 “앞으로 썸트렌드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며, 고객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사결정 할 때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필수적인 서비스로 발전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